

**ORIGINALE  
FESTIVAL  
FOR**

**10.29 - 12.5**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	임고은 —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	문래예술공장	11:15-20:50				11:15-18:35													
2	임고은 — 모래-정원 삼부작	문화비축기지 T1-T2							13:00-19:00						13:00-19:00					
3	마텐 스펙베르크 — 강둑 대화	더 소호 레지던스	19:00-21:30		19:00-21:30		19:00-21:30					19:00-21:30								
6	마텐 스펙베르크 — 출구는 공동체	추후 공지		17:00-18:00			17:00-18:00		17:00-18:00				17:00-18:00							
4	마텐 스펙베르크 — 월닝엔	문화비축기지 T4													19:00-22:00					
7	인그리 픽스달 — 내일의 그림자	문화비축기지 T1					20:00-20:40													
8	킵 더 머신 다큐멘터리 콜렉티브 — 움/신 스페이스 침묵	움/신 스페이스	13:00-21:00				13:00-21:00								13:00-21:00					
9	라브 디아즈 — 멜랑콜리아	신촌극장															14:00-22:00			
10	정금형 — 만들기 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5:00-16:00											
11	로이스 응 — 현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9:30-20:20					

장(scene)으로부터 / 벗어나다(ob)

움/신 페스티벌은 매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동시대 예술 축제다. 움/신 페스티벌은 오늘날 예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한때 예술이 약속했던 변화의 가능성이 무력해지고 있는 지금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정치적 힘, 경제적 논리, 미학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어 우리를 또 다른 비전으로 이끄는 예술가들의 장이다.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3	임고은 — 실재하는 두꺼비가 사는 상상의 정원	움/신 스페이스																		16:00-21:00	
12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를라호마 — 죽은 자의 아이들	움/신 스페이스	20:00-21:30							20:00-21:30											
15	고이즈미 메이로 — 사술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문화역서울284										12:00-18:30									
17	김지선 — 역행의 여행사	문화역서울284																		14:00-15:00	17:00-18:00
25	21 Days: 포스트모템 토크	문화역서울284																		15:00-16:00	
13	차이밍량 — 폐허	문화역서울284																			
16	김나희 — 미토릭스	문화역서울284																			
14	호추니엔 — R for Resonance	문화역서울284																			
18	김희천 — 사랑과 영혼	문화역서울284																			
19	정여름 — 천부적 증인계	문화역서울284																			
20	김보용 — 생각을 멈춘 크레타인	문화역서울284										11:00-19:00								11:00-19:00	
21	서현석 — ( )	문화역서울284																			
22	이상 (with 하상철, 서현석) — 날개	문화역서울284																			
23	정금형 — 레코드 스톱 플레이	문화역서울284																			
25	21 Days: 실패의 수사학	문화역서울284																			
24	에란젤: 불가능한 공동체	문화역서울284																			

Ob/scene Festival makes scenes out of the scene. Ob/scene Festival is 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that takes place all across Seoul in autumn every year. it questions the role of art in today's society. In times when the changes art once promised seem ever more distant, the festival persists to ask what it is that art can do nonetheless. Ob/scene Festival is an arena for artists who stubbornly raise their voices undeterred by political pressure, economic logic, and aesthetic convention, thereby leading us to a new vision.

가상정거장

## 아키텔라고 맵: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

임고은은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 속에서 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적 예술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키텔라고 맵」을 구상한다.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이 여정은 문래예술공장, 문화비축기지, 옴/신 스페이스를 가로지르며 각각 퍼포먼스, 영상설치, 워크숍의 형식으로 펼쳐진다.

먼저 문래예술공장에서 공연될 퍼포먼스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에서는 비움과 채움이 만나는 세 개의 동그라미 속으로 고래와 인간의 시간이 함께 잠수한다.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여 만들어진 ‘확장된 우리’는 서로를 비추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10.29 금-11.2 화 11:15/12:00/12:45/13:30/14:15/15:00/

16:30/17:15/18:00/18:45/19:30/20:15

11.3 수 11:15/12:00/12:45/13:30/14:15/15:00/16:30/17:15/18:00

20,000원/35분 / 한국어·영어 / 퍼포먼스

## Archipelago Map: Three Circles with(in) the Whale

Im Go-Eun conceives the [Archipelago Map] as a process of discovering a poetic language of art to recover the wild in the face of a global ecological crisis. Stretching across Seoul Art Space Mullæ, Oil Tank Culture Park, Ob/scene Space, this journey consists of three projects in the form of performance, video installation, and workshop.

The first part will be a performance titled [Three Circles with(in) the Whale], where the time of whales and humans dive together into three circles, a space both filled and empty at the same time. Imagining the past, remembering the future, could this “expanded us” reflec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콘셉트·영상: 임고은

프로듀서: 유병진

기술 감독: 김연주

공연: 심은지, 김하연, 길경하

전시 디자인: 박효선

출판물 기획·편집: 이한범(나선프레스)

그래픽 디자인: 김단비

사운드: Post Industrial Boys (George Dzodzquashvili), Marie Poland Fish

텍스트: Emily Dickinson, Ursula K. Le Guin,

Herman Melville, Philip Hoare, Robert Graves

영문 번역 감수: Maurizio Buquicchio, Igor Sevcuk

위촉: 옴/신 페스티벌

후원: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2021년 서울문화재단 BENXT(비넥스트) 선정작

Seoul Art Space Mullæ Box Theater

Oct 29 Fri–Nov 2 Tue 11:15/12:00/12:45/13:30/14:15

/15:00/16:30/17:15/18:00/18:45/19:30/20:15

Nov 3 Wed 11:15/12:00/12:45/13:30/14:15/15:00/16:30/17:15/18:00

20,000 won/35 min / Korean and English / performance

## 아키펠라고 맵: 모래-정원 삼부작

[아키펠라고 맵]의 두 번째 파트인 [모래-정원 삼부작]에서는 문화비축기지 전체를 낫선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타자의 공간인 낫선 정원에서 엘렌 식수는 그녀의 것이 아닌 그녀의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고(‘낫선 정원의 찰나’), 둥근 달에 담겨 전해지는 고래-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정원의 그림자 연못에 또 하나의 동심원을 그리기도 한다(‘명월주; 그림자의 연못’). 또 다른 정원에서는 연약한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원지기의 한 해가 재구성되고 되풀이된다(‘다른 정원; 조엘의 정원’). [모래-정원 삼부작]을 둘러싼 이 세 이야기는 지하 극장과 유리 온실에서 자라나 야외 극장에서 흩어져 다음 섬으로 이어진다(‘모래알 속 정원들’).

다른 존재와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낫선 정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감각과 사유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낫선 정원의 찰나’, 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8분

‘명월주; 그림자의 연못’, 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20분

‘다른 정원; 조엘의 정원’, 문화비축기지 T1, 12분

‘모래알 속 정원들’, 문화비축기지 T2 야외공연장

11.5 금-11.14 일 13:00-19:00

월요일 휴관

11.5 금·11.6 토 ‘다른 정원; 조엘의 정원’ 상영은 17:00 조기 종료

10,000원 / 한국어·영어/영상 및 사운드 설치

## Archipelago Map: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is the second part of the [Archipelago Map], for which the entire Oil Tank Culture Park will be transformed into an unfamiliar garden. In this garden – a space of the other – H el ene Cixous tells the story of her garden that is not hers (“In the Instant of a Foreign Garden”). Meanwhile, the story of the whale-human is kept in a moon, drawing concentric patterns in the pond of shadows (“Myungwolju; The Pond of Shadows”). In another garden, the year of a gardener, caretaker of fragile existences, is reconstructed and repeated (“The Other Garden; Jo el’s Garden”). These three stories of the trilogy grow from the underground theater and the glass pavilion into the outdoor stage, continuing to the next island (“The Gardens in a Grain of Sand”).

If we look into our relationship with other be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familiar garden, how far could our senses and thoughts be expanded?

“In the Instant of a Foreign Garden,” Oil Tank Culture Park T2, Theater, 8 min  
 “Myungwolju; The Pond of Shadows,” Oil Tank Culture Park T2, Theater, 20 min  
 “The Other Garden; Jo el’s Garden,” Oil Tank Culture Park T1, 12 min  
 “The Gardens in a Grain of Sand,” Oil Tank Culture Park T2, Outdoor Theater  
 Nov 5 Fri–Nov 7 Sun 13:00–19:00

Monday closed

On Nov 5 Fri and Nov 6 Sat, “The Other Garden;

Jo el’s Garden” will only run until 17:00

10,000 won / Korean and English /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콘셉트·영상: 임고은

프로듀서: 유병진

진행: 심은지, 김하연, 길경하

사운드: Post Industrial Boys (George Dzodzuashvili),

Polina Fenko, Harry Patch, John Cage

텍스트: Emily Dickinson, H el ene Cixous, Doris Lessing, Karel Capek,

Ursula K. Le Guin,  douard Glissant, Marianne Moore

영문 번역 감수: Maurizio Buquicchio, Igor Sevcuk

출판물 기획·편집: 이한범(나선프레스)

그래픽 디자인: 김단비

전시 디자인: 박효선

위촉: 옴/신 페스티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다원예술 활동 지원 Reboot 지원 사업

## 아키펠라고 맵:

### 실제하는 두꺼비가 사는 상상의 정원

[아키펠라고 맵: 실제하는 두꺼비가 사는 상상의 정원]에서는 그동안의 여정에서 만났던 사유와 감각을 현실로 연결하는 정원을 일군다. 워크숍 참가자는 낯선 언어로 만들어진 사진 '다원우주' 속 문장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말은 흙과 씨앗에 담겨 이동하고 뿌리내리며, 곤충과 함께 짹트고 동물과 함께 자라나 다시 우리를 만든다.



© Courtesy of the artist

움/신 스페이스

12.1 수-12.5 일 16:00 / 16:30 / 17:00 / 17:30 / 18:00 / 19:30 / 20:00 / 20:30

한국어·영어 / 워크숍

## Archipelago Map: Imaginary Gardens with Real Toads

In 「Imaginary Gardens with Real Toads」, we will together grow a garden, where the senses and thoughts encountered during the previous journey are connected with reality.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will listen to the phrases of a “pluriverse” dictionary and create one’s own words. These words will be transplanted with soil and seeds, settling its roots alongside insects and growing with animals, forming another “us.”

콘셉트·연출: 임고은

프로듀서: 유병진

출판물 기획·편집: 이한범(나선프레스)

그래픽 디자인: 김단비

그림: Gwynnavier Go Eun Im Chase

위촉: 옴/신 스페이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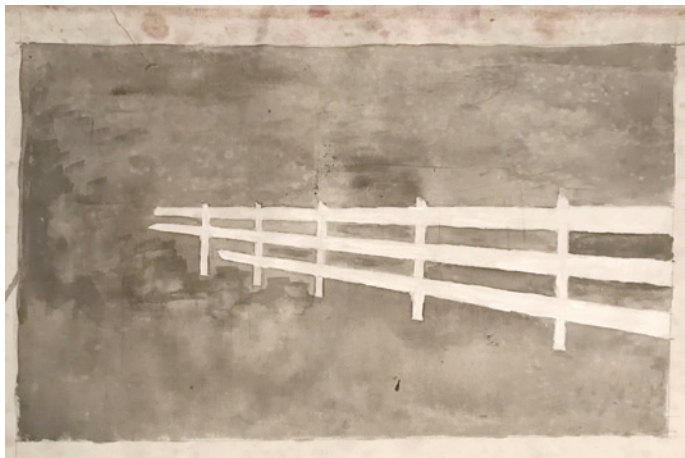
Ob/scene Space

Dec 1 Wed–Dec 5 Sun 16:00/16:30/17:00/17:30/18:00/19:30/20:00/20:30

Korean and English / workshop



## 힘닝엔



© Courtesy of the artist

마텐 스펡베르크는 옴/신 페스티벌 2020에서 공연 「그들은, 배경에 있는, 야생의 자연을 생각했다」와 수행적 글쓰기 「그들은 야생에 있었다」를 통해 춤의 잠재성을 모색했다. 올해는 공연 「힘닝엔」, 렉처 시리즈 「강독 대화」, 공공의 춤추기 「춤추는 공동체」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힘닝엔」에서 춤은 망각과 기억, 부재의 존재, 흐르는 시간의 정적이 공존하는 풍경을 열어 낸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울타리의 틈새로 새어 들어간다. 여기는 사물이 본래의 이름대로, 본래의 존재대로 불리지 않는 곳, 인간이 늑대인간이 되는 곳, 낮의 옷은 벗었지만 아직 베개 밑 잠옷은 꺼내지 않은 곳이다. 「힘닝엔」은 황혼이라는 중간 지대에서 춤이 어떻게 다른 존재들의 형태를 드러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장기 프로젝트다. 스펡베르크는 서울의 무용수들과 함께 황혼을 둘러싼 작품을 만든다. 이 춤은 분명 존재하지만, 오직 이전에 존재했던 춤과 앞으로 오게 될 춤과의 관계 속에서만 식별되며, 관객은 표현이나 재현, 혹은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는 잠시 놓아두고 춤 그 자체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어렸을 적, 나는 종종 어머니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 해가 질 때쯤 도착해서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궤적을 눈으로 좇았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파도가 어둠과 점점 하나가 되다가 어느새 소리만으로 남게 되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가끔은 파도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 눈을 감기도 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 Skymningen

[Skymningen] is a dance opening towards a landscape in which forgetting and memory, the presence of absence, and the stillness of a time passing, coexists. Where everything turns into dust and sneaks through a gap in a neglected fence, what things are called isn't their name or what they are. Where humans are no longer human but not yet werewolves, stuck at the moment when the day undresses and the pajama is still hidden under your pillow.

“As a child, I often went with my mother, and her mother to the beach to watch the waves. Arriving as the sun was setting, we followed its path vanishing under the horizon. We sat silently together on the sand and saw the waves merge with the darkness until they were only heard. Sometimes we closed our eyes in order to sense their presence even stronger. A little bit later we went home again.”

[Skymningen] is a long-term research project into relations into how dance reveals forms of being, allowing the spectator to spend time with being, letting go of expression and tangibility.

The Swedish choreographer Mårten Spångberg has worked with a group of dancers from Seoul to create a dedication to the twilight, a dance that exists however only identified in regard of what already was and what is yet to come.

Oil Tank Culture Park T4  
Nov 11 Thu / Nov 12 Fri / Nov 13 Sat 19:00  
30,000 won / 3 hrs / dance

제안: 마틴 스팅베르크

함께: 마틴 스팅베르크, 박상미, 박진영, 박한희, 서영란, 이경후, 이민진, 정다솔

위촉·제작: 옴/신 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사업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With and by: Mårten Spångberg, Park Sangmi, Park Jinyoung, Park Hanhee,

Seo Youngran, Lee Kyunghoo, Lee Minjin, Chung Dasoul

Made possible with support from the Swedish Art Council and Fond

Darstellende Künste, Korean Art Council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강독 대화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식은 어떻게 사유와 연결될까? 사유가 지식이 되는 순간 무언가가 상실되는 것은 아닐까? 사유가 모든 것을 지식으로 고정하려는 흐름을 거부하는 힘이 될 수도 있을까? 예술은 지식이 유보되는 공간을 열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유는 고정된 방향성 없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축제 기간 중, 마텐 스펡베르크는 관객을 네 번의 대화로 초대한다. 강독에서 나누는 대화처럼 생각을 흘러보내고,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잠시나마 삶의 속도를 바꿔 보는 것, 어느 중간 지대에 머물러 보는 것이 스펡베르크와 참여자들 공동의 책임이 된다. 이 네 번의 모임은 춤과 미학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갖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도출하기보다는 대화 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보살피고, 이로부터 다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더 소호 레지던스

10.30 토/11.1 월/11.3 수/11.7 일 19:00

2시간 30분 / 한국어·영어·대화 시리즈

## Riverbank Sessions

Somebody once exclaimed, “I’m just an onlooker on the spectacle of life, all amazed”. Really sweet but what happens then, in the car, at home, in the dance studio, or wherever. What does it mean to reflect and where does knowledge connect? Is it maybe so that something is lost the moment knowledge arrives, or can reflecting start processes that resist the temptation to know, to locate something? Does art enable spaces where knowledge can be postponed, and as long as it is things and thoughts can expand without direction.

During the festival, Mårten Spångberg invites an audience to four conversations, exchanges, so to say on the riverbank, that let things pass, float by following streams of consciousness, and where our shared responsibility is to change speed yet staying in the middle.

Starting from dance and aesthetics in general those are aimless gatherings that rather than trying to be convincing wish to care for whatever shows up and continues.

제안: 마텐 스팅베르크

통역: 이경후

위촉·제작: 옴/신 페스티벌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Translation: Lee Kyunghoo

The Soho Residence

Oct 30 Sat / Nov 1 Mon / Nov 3 Wed / Nov 7 Sun 19:00

2 hrs 30 min / Korean and English / series of conversations

## 춤추는 공동체

오늘날 공공장소는 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공간 중 하나로, 점점 사적 이해와 이윤 추구에 포획되어 가고 있다. 공공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지성이 자유로워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공공장소를 고정된 건축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발생하고 어디서든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춤에 어쩌면 이런 일시적인 공공의 상황, 공공의 공간을 발생시킬 역량이 있지 않을까?

마텐 스펡베르크는 네 번에 걸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춤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함께'가 가능해지는 공공의 장을 발생시킨다.



© Courtesy of the artist

장소 홈페이지 공지

10.31 일 / 11.4 목 / 11.6 토 / 11.9 화 17:00

60분 / 한국어·영어 / 공공장소에서의 춤

## The Dancing Community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societies is under threat. Public space is co-opted by private interests and rented to corporations. One reason why public space is precious is that it is the space where politics are conducted, where democracy is born and intellect is free.

But perhaps public space is not synonymous with architectural or stable spaces, public instead is something that emerges and is temporary.

To dance is not necessarily private, but can be something that activates those temporary public situations or spaces.

During four evenings the Swedish choreographer Mårten Spångberg will create dance situations open to the public to engage in forms of dance that activate public space, a space where forms of togetherness are open and we can be together.

제안: 마틴 스팅베르크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Place to be announced

Oct 31 Sun / Nov 4 Thu / Nov 6 Sat / Nov 9 Tue 17:00

60 min / Korean and English / dance in public space

## 내일의 그림자

잉그리 픽스달은 춤과 정동의 관계를 탐구해 온 노르웨이의 안무가다. 「내일의 그림자」는 복잡한 샘플 비트의 조합과 추상적인 가사가 특징인 사이키델릭 힙합에서 출발한다. 픽스달은 이 음악을 안무의 재료로 가져오지만, 소리를 지우고 오직 몸과 빛으로 사이키델릭 콘서트를 구현한다. 천으로 전신을 감싼 스무 명의 퍼포머들은 몸과 반복을 통해서 서로에게 비트를 전염시키며 공간을 채워 나가고, 그림자는 이를 증폭시킨다. 주체를 탈각한 몸은 자유로운 익명성과 고유의 잠재성을 오가며 근감각의 전이와 집단 전염의 잠재성을 실험한다.



© Anders Lindén

문화비축기지 T1

11.4 목 / 11.5 금 / 11.6 토 20:00

작가와의 대화: 11.6 토 16:00 (ZOOM)

20,000원 / 40분 / 무용

## Shadows of Tomorrow

Ingri Fiksdal is a Norwegian choreographer who has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affect. [Shadows of Tomorrow] departs from psychedelic hip-hop, characterized by complex sample-based beats, often obscure material, and abstract lyrics led with unconventional references. Although the performance draws from this music in its choreographic material and composition, there is no music to be heard; the psychedelic concert is realized only through moving bodies and light. The work investigates the potential for kinesthetic transference between performers and audience, and the latent contamination in mass-movement.

### 한국 버전

출연: 양성윤, 윤경근, 이예찬, 김은, 박수영, 김세연, 전희원,  
이소희, 박소연, 이준석, 최민선, 이주희, 양유정, 이나리,  
조준홍, 김지혜, 김률의, 오현택, 정희은, 천현정

리허설 디렉터: 무궁화

협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공동 제작: 국립현대무용단 × 옴/신 페스티벌

후원: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Choreography: Ingri Fiksdal

Light design: Igeborg Olerud

Light technician: Phillip Isaksen

Performer and artistic advisor in Seoul: Rosalind Goldberg

Performers of original cast: Pernille Holden, Sigrd Hirsch Kopperdal,

Rosalind Goldberg, Venke Sortland, Marianne Skjeldal

Costume design: Ingri Fiksdal, Elena Becker, Signe Vasshus

Producer/administration: Eva Grainger

Producer/distribution: Nicole Schuchardt

Production: Fiksdal Dans Stiftelse

Funded by: Arts Council Norway, The Norwegian Artistic Research Program

Thanks to: Skolen for Samtidsdans

Oil Tank Culture Park T1

Nov 4 Thu / Nov 5 Fri / Nov 6 Sat 20:00

Artist talk: Nov 6 Sat 16:00 (ZOOM)

20,000 won / 40 min / dance



Norwegian Embassy  
Seoul



## 침묵

태국의 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이 이끄는 킷 더 머신 다큐멘터리 콜렉티브는 태국의 정치 역사에서 침묵으로 남은 어느 기억에 관해 이야기한다. 「침묵」은 1976년 10월 6일 탐마삿 대학교 학살 사건을 되짚어 본다. 10.6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탐마삿 대학교에서 군사 독재자 타놈 끼띠카쑤의 재집권에 반대하여 이루어졌던 학생 시위를 태국 정부와 극우 무장 단체가 탄압한 것으로, 당시 동남아시아 전반에 팽배해 있던 반공주의 운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실제 사상자의 숫자는 오늘날까지 은폐되어 있고,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있다. 작품은 이 잔혹한 유행 사태 아래 도사리고 있는 기억과 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옴/신 스페이스

10.29 금-11.14 일 13:00-21:00

월요일 휴관

20분 / 태국어 · 한국어 / 무빙 이미지와 사운드 설치

## Silence

Recounting the most unvoiced memory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ailand, [Silence] ponders the Thammasat University Massacre on 6th October 1976 to reemerge latent memories and histories of the severe bloodshed. Known as the 6 October event in Thailand, it was the crackdown by Thai state forces and far-right para-militaries on student demonstrations against the return of former military dictator Thanom Kittikachorn at Thammasat University, which was largely filled by the anti-communism movement in Southeast Asia. The massacre officially inscribes 46 students were killed, with 167 wounded while it led to the imprisonment of approximately 3,100 accused of allegedly being communists and threats to the monarchy. Nevertheless, the true number that was estimated much higher is still concealed but also perpetrators have never been convicted after 44 years passed.

Conceived and directed by: Apichatpong Weerasethakul, Akritchalerm Kalayanamitr, Chatchai Suban, Pathompong Manakitsomboon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Ob/scene Space

Oct 29 Fri–Nov 14 Sun 13:00–21:00

Monday closed

20 min / Thai and Korean / moving image and sound installation

## 멜랑콜리아

한때 혁명 운동을 했던 세 인물이 있다. 이들은 혁명이 실패한 뒤 쓸쓸한 삶을 살아간다. 알베르타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메고, 줄리안에게는 죽은 아내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리나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왜 세상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까? 행복은 실존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한 것일까? 결국 삶이란 인간의 고통을 측정하는 과정일 뿐인가? 알베르타, 줄리안, 그리고 리나는 이러한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아픈 몸부림을 친다. 여덟 시간에 달하는 작품의 러닝타임은 이들이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지루함을 영화적 압축 없이 감각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조건이며, 필리핀의 초상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라브 디아즈의 방법론이다.



© Courtesy of the artist

신촌극장

11.13 토 / 11.14 일 14:00

10,000원 / 7시간 30분 / 필리핀어 · 한국어 / 영상 스크리닝

## Melancholia

Three people have once taken part in the revolution. The revolution has failed and their desolate lives continue. Alberta wanders around looking for her husband's dead body, Julian hears the singing of his dead wife, and Rina breaks down from sadness. Why is the world filled with such unbearable grief? Is happiness a mere "concept" that cannot be found in reality? Is life nothing more than the process of measuring human agony? Alberta, Julian, and Rina writhe in pain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 duration of the film is a condition that viewers must endure, in order to sense the weariness of these characters without any cinematic abstraction; it is Lav Diaz's methodology to capture the vivid portrait of the Philippines.

Cast: Angeli Bayani-Alberta Munoz (Jenine), Perry Dizon-Julian Tomas (pimp), Roeder Camañag (Renato Muñoz), Dante Perez (rebel 1), Raul Arellano (rebel 2), Malaya-Rina Abad (nun), Irma Adlawan-Spiritist (store owner), Cookie Chua-Patricia (kundiman singer), Yanyan Taa (Hannah), Soliman Cruz (man in wheelchair), Emmanuel Dela Cruz (Lauro), Carme Sanchez (mother), Bodjie Pascua (novelist), Roence Santos (psychiatrist), Earl Ignacio (Angelo), Lui Manansala (Rina's mother)

Cinematography by: Lav Diaz

Film Editing by: Lav Diaz

Production design by: Dante Perez

Production manager: Nina Dandan

Production manager: Kristine Kintana

Sound: Willy Fernandez, Sultan Diaz, Joel Ferrer, George Vibar

Still photographers: Jake Atienza, Shireen Seno

Lighting: Willy Fernandez, George Vi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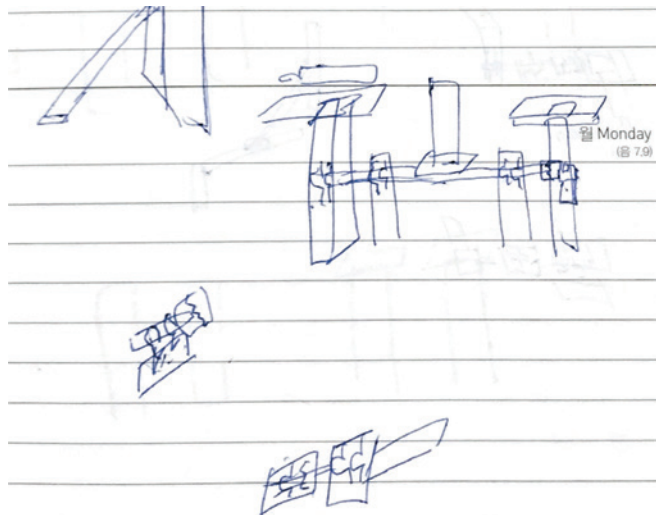
Sinchon Theater

Nov 13 Sat / Nov 14 Sun 14:00

10,000 won / 7 h 30 min / Filipino and Korean / film screening

## 만들기 쇼

정금형은 2019년에 처음 선보인 로보틱 조각 [홈메이드 RC 토이]를 시작으로 DIY 로봇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완성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정금형의 로봇 제작 과정은 실수와 실수 만회하기의 연속이었다. [만들기 쇼]에서 정금형은 그동안 제작한 로봇 중 하나의 모델을 선정하여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모델 하나를 완성해 본다. 이미 한번 만들어졌던 모델을 관객 앞에서 다시 만들 때 그 과정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관객 앞에서 능숙한 제작자로 보이기 위해 정금형은 로봇 제작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고,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생략할지 선택해야 한다. 로봇 제작 과정 소개를 위한 로봇 제작 연습은, ‘안무 연습’이라고 해야 할까?



© Courtesy of the artist

## Making Show

Jeong Geumhyung is developing a series of robotic allegories that began with the first robotic sculpture 「Homemade rc Toy」, first introduced in 2019. Until the robot manages to operate properly, Jeong's process of producing the robot is an endless loop of making mistakes and making up for these mistakes. In 「Making Show」, Jeong will select a model from her previously created robots, introduce the detailed process of its making, and try to make its complete version in front of the audiences' eyes. Will the process of remaking a model that was already once built end up successfully? To appear as a skillful producer of the robots to the audience, Jeong has to repeatedly practice the production process and select what she wants to show and what she wants to skip. Could we call this practice of robot making a “choreographic practice”?

콘셉트·제작·출연: 정금형

위촉·제작: 옴/신 페스티벌

리서치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한-싱가포르 교류협력 사업 사전리서치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 부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으로 제작되었다.

## 현존

로이스 응은 기술로 촉발된 가상현실들이 우리의 인식과 지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오늘날, 현존감이라는 개념은 절단된 팔에 느껴지는 환상통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무대 위에 자신의 ‘환상 현존’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현존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는가? 확실한 여기와 지금은 존재하는가? 오늘날 언젠든,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는 나의 현존은 어떤 무게를 지니는가?



© Courtesy of the artist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1.11 목 / 11.12 금 19:30

20,000원 / 50분 / 한국어·영어 / 원격 퍼포먼스

## Presence

In a world where virtual realities are radically changing our awareness and perception, Royce Ng talks about the notion of “presence” as something like the phantom pain we feel in amputated limbs. On stage, Ng attempts to create a “phantom presence” of himself. Can technology incarnate presence? Is there a definite here and now? In a world where we can be almost anywhere at any time, how much weight does one’s presence hold?

Text and direction: Royce Ng  
 Local performer: Sim Hayoun  
 Remote performer: Royce Ng  
 Acting direction: Stina Fors  
 Stage and light design: Michele Piazzi  
 Stage assistant: Benedetta Monetti  
 Sound design: John Bartley  
 Animations: Zheng Mahler Studio  
 Technical direction: Michele Piazzi  
 Programming: Alvaro Cassinelli  
 Production management: Stéphane Noël  
 Korean subtitles: Lee Kyunghoo  
 Produced by: Royce Ng & Materialise (HK)  
 Co-production with: Zürcher Theaterspektakel (CH), Kampnagel –  
 International Center for Fine Arts (Hamburg, DE), Ob/scene Festival,  
 Taipei Performing Arts Center (Taipei, TW), Kaserne Basel (CH)  
 This project is supported by the IMPACT program of the Théâtre de Liège,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Rayonnement Wallonie grant, an initiative of  
 the Walloon Government, operated by ST'ART SA. Hardware and software  
 support provided by Alvaro Cassinelli and the Augmented Materiality Lab,  
 School of Creative Media,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This performance was realised thanks to an artistic residency hosted by Emilia  
 Romagna Teatro Fondazione (Bologna, IT).

Daehakro Arts Theater Small Hall

Nov 11 Thu / Nov 12 Fri 19:30

20,000 won / 50 min / Korean and English / remote performance



## 죽은 자의 아이들

유럽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올리히 자이델이 제작을 맡고, 연극 단체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클라호마(켈리 코퍼·파블 리스카)가 연출한 영화 작품이다. 이번에는 엘프리테 엘리테크의 소설 「죽은 자의 아이들」을 가져와 B급 호러물과 가족 멜로드라마 중간쯤에 놓인 영화를 만든다. 알프스의 어느 목가적인 관광지 마을에서 죽음을 맞이한 세 좀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아마추어용 필름 슈퍼 8mm로 촬영하고 실제 북부 오스트리아의 마을 주민들이 비전문 배우로 출연하는 이 영화는 자연, 문화, 사회, 역사 모든 영역에서 누적된 인간의 죄책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언데드’처럼 되살아나는 모습을 그린다.



© Courtesy of the artist

옴/신 스페이스

11.16 화-11.28 일 20:00-21:30

월요일 휴관

10,000원 / 90분 / 독일어·한국어 / 영화

## Die Kinder der Toten

Produced by Ulrich Seidl and directed by the theater group Nature Theater of Oklahoma (Kelly Copper and Pavol Liška), [Die Kinder der Toten] is a free cinematic adaptation of Elfriede Jelinek's novel with the same title. The work is situated somewhere between a B-movie and a typical Heimat genre. Revolving around three zombies who died in a pastoral tourist village somewhere in the mid-Alps, this Super-8 holiday film from Upper Styria slowly turns into the resurrection of "undead" spooks. The question of the (im)possibility of adequate processing of accrued debt shoots through all those aspects – nature, culture, society, history – that are still part of national identity today.

Written, filmed, directed, and edited by: Kelly Copper and Pavol Liška – Nature Theater of Oklahoma  
 Producer: Ulrich Seidl  
 Artistic collaboration: Claus Philipp  
 Co-edited by: Michael Palm  
 Supervising sound designer: Matz Müller  
 Re-recording: Tobias Fleig  
 Composer: Wolfgang Mitterer  
 Line producer: Daniela Trauner, Georg Aschauer  
 Production manager: Teresa-Sajja Wieser  
 Producer USFP: Claus Philipp, Georg Aschauer  
 Cast: Andrea Maier, Greta Kostka, Klaus Unterrieder, Georg Beyer i. a.  
 Supported by: Österreichisches Filminstitut, Land Steiermark, CINE ART: Kultur Land Steiermark  
 In collaboration with: ORF Film/Fernseh-Abkommen  
 Produced by: Ulrich Seidl Filmproduction © Vienna 2019  
 in collaboration with Steirischer Herbst 2017  
 Subtitle provided by: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번역 제공: 전주국제영화제

Ob/scene Space  
 Nov 16 Tue–Nov 28 Sun 20:00–21:30  
 Monday closed  
 10,000 won/90 min / German and Korean / film

## 가상정거장

옵/신 페스티벌에서 제작, 위촉, 초청한 작품 열세 편을 문화역 서울 284에서 협력 전시 『가상정거장』으로 선보인다. 역사 속 서울역은 물리적인 장소들을 이어 주던 정거장이었다. 『가상정거장』은 이곳에서 여러 멀티버스들을 잇는 장을 만든다. 단일한 세계를 상정했던 과거와 달리 여러 세계들이 중첩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가상, 물질과 비물질을 넘나들며 이 시대에 필요한 비평적 사유를 모색한다.

## Virtual Station

Thirteen works produced, commissioned, and invited by Ob/scene Festival will be presented in the frame of 『Virtual Station』, a collaboration exhibition with Culture Station Seoul 284. Historically, Seoul Station was a platform that connected physical spaces. 『Virtual Station』 creates a platform where different “multiverses” come together. Contrary to our previous premise of a single “universe,” today, different worlds are imbricated and interwoven. Transcend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reality and the virtual, the material and the immaterial, the exhibition gathers critical thoughts pertinent today.

## 폐허

샤오강은 산 속에서 병을 회복 중이다. 어머니가 그를 찾아와 요리를 해주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샤오강의 이웃집에는 여자 유령이 살고 있다. 유령 또한 샤오강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샤오강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말동무는 고독한 물고기뿐이다.

「폐허」는 질병과 회복, 사라지지 않고 머무르는 기억에 관한 유령 이야기다. 차이명량의 첫 VR인 이 작품은 그간 그가 영화로 빚어 냈던 시간의 경험과 유령의 감각을 고스란히, 어찌먼 더 충실하게 담아낸다. VR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55분의 러닝타임 동안 관객은 현실의 시간으로부터 단절되어 느리게 흘러가는 차이명량의 영화적 시간 속에 놓이게 된다. 스크린 내부로 초대되었지만 공간을 부유할 수밖엔 없는 유령의 위치에서 관객은 폐허를 매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감지하고 죽음에 관한 사유로 나아간다.



© HTC VIVE ORIGINALS, photo by Chang Jhong-Yuan

## The Deserted

Hsiao-Kang is recuperating from an illness in the mountains. His late mother visits him and cooks for him. But he is unable to eat the food. A female ghost lives next door to him. Like his mother, she's unable to enter his life. The only companion he can speak with is a lone fish.

[The Deserted] is a ghost story on illness and recovery, on memories that do not disappear and linger. Tsai Ming-liang's first VR production, the work fully reincarnates the experience of time and the ghostly sensation that were characteristic of his previous film works. For 55 minutes – an exceptionally long duration for a VR piece – the audience finds oneself dislocated from reality and immersed in the cinematic time of Tsai. Although invited to enter the space inside the screen, the audience is suspended in the position of the ghost. Hovering over the space, one will be led to sense invisible existences that fill the space and contemplate thoughts of death.

Cast: Lee Kang-Sheng, Chen Shiang-Chyi, Yin Shin, Lu Yi-Ching  
 Director: Tsai Ming-liang  
 Screenwriters: Tsai Ming-liang, Claude Wang  
 Executive producers: Cher Wang, Liu Szu-Ming  
 Producer: Claude Wang  
 Co-producer: Christine Chiang  
 Director of photography: Sung Wen-Chung  
 Technical coordinator: Jack Huang  
 Gaffer: Ian Ku  
 Production designers: Kao Jun-Honn, Lee Tien-Chueh, Tsai Ming-liang  
 Costume designer: Wang Chia-Hui  
 Sound designer: Dennis Tsao  
 Recordists: Lee Yu-Chih, Lee Po-Yao  
 Production manager: Yaya Yeh  
 Post-production coordinator: Tommy Chang  
 Editor: Jack Huang  
 International marketing: Lin Fang-Hsu, Hsiao Pei-Wen, Mao Lee-Tzu  
 Presented by: HTC Vive  
 In association with: Jaunt China Studio  
 Produced by: Liu Szu-Ming, James Fong  
 Production: Homegreen Films  
 Co-production: HTC Vive Originals, Jaunt China Studio, G. C. Entertainment  
 With the support of: Bureau of Audiovisual and Music Industry Development, MOC  
 International sales: HTC Vive Originals  
 With the support of: Taiwan Cultural Center,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 R for Resonance

호주니엔은 하나의 언어, 종교, 정치 체제로 통합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혼재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남아시아 비평 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아홉 번째 프로젝트인 [R for Resonance]에서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징이라는 악기가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한다. 징은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제의적 도구이자 악기로, 징에 관한 이야기는 5천 년 전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R for Resonance]에서는 이 악기를 둘러싸고 문화가 전파되고, 기술이 받아들여지고, 사회적 지배 구조가 생겨난 궤적을 되짚어 본다. 끊임없이 퍼져 나가는 파동의 이미지와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구리의 연성을 가상현실(VR) 속 몽환적인 시각 사진으로 구현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 R for Resonance

The *Critical Dictionary of Southeast Asia* (CDOSEA) begins with a question: What constitutes the unity of Southeast Asia, a region never unified by language, religion, or political power? The ninth volume of this project, [R for Resonance] explores the position of gongs in Southeast Asia, ubiquitous ritual and musical objects found everywhere in the region. To tell the story of the Gong in this region is to embark upon a story spanning at least 5,000 years, beginning with the Southeast Asian Bronze Age. In [R for Resonance], this complex tale of cultural diffusion, technological adaptation, and social domination is condensed into a dream-like visual dictionary unfolding in virtual reality, in which the recurring form of the circle opens to ever-expanding rings of associative vibrations.

Directions and design: Ho Tzu Nyen

Animation: Vividthree Productions

Visual effects director: Jay Hong

Executive producers: Sky Li Yunfei, Charles Yeo, Jed Mok Wai Yin

Producers: Ruby Ng, Shawn Chew

Technical director: Jakub Czeslaw Piasecki

Visual effects supervisor: Tan Wey Zhen

Lead 3D artist: Desmond Loh

3D artists: Minoru Kawaguchi, Sun Xiao Yu, Lin Yan Qi, Chong Sin Kian

Technical director: Andy Lim

Project manager: Yap Seok Hui

Music and sound: Yasuhiro Morinaga

Collaborators: Norimitsu Okubo, Nobuyoshi Kondo

Technical support: Teishi Hirai, Minne-Chang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Co-produced by: Rockbund Art Museum + Edouard Malingue Gallery

Special thanks: Asia Art Archive

Culture Station 284, Spare Room for VIP, 1F

Nov 23 Tue–Dec 5 Sun 11:00–19:00

VR video installation, ambisonic sound

##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아이스킬로스의 동명 비극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 불이라는 기술을 훔쳐다 준 대가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인간과 기술 사이에 존재해 온 기나긴 긴장의 역사를 시사한다. 이번 VR 작품에서 고이즈미 메이로는 근육이 굳어가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와 대화를 나눈다. 둘은 함께 과거와 미래, 자신과 타자, 인간과 기계가 뒤엉키는 공상과학 같은 근미래를 상상한다. 우리의 몸과 감각이 가상현실로 확장될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 Aichi Triennale 2019, photo by Shun Sato

문화역서울 284 1층 중앙홀

11.26 금-11.28 일 12:00/12:30/13:00/13:30/14:00/14:30/

15:00/15:30/16:00/16:30/17:00/17:30

60분 / 한국어·일본어 / VR 퍼포먼스



## Prometheus Bound

Setting the Aeschylus Greek tragedy [Prometheus Bound] as a starting point, Koizumi created a vr theater which deals with this age-old tension between humanity and technology, through collaboration with a person who is desperately longing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 a person who is suffering from ALS. Through the dialogues with the man about his personal life and his visions of the future, they created a sci-fi vision in which past and future, self and others, humans and machines are all merged into one sequence of abstract vr theatrical experience. Will it be a utopia or dystopia that we experience through vr's expansion of our bodies and s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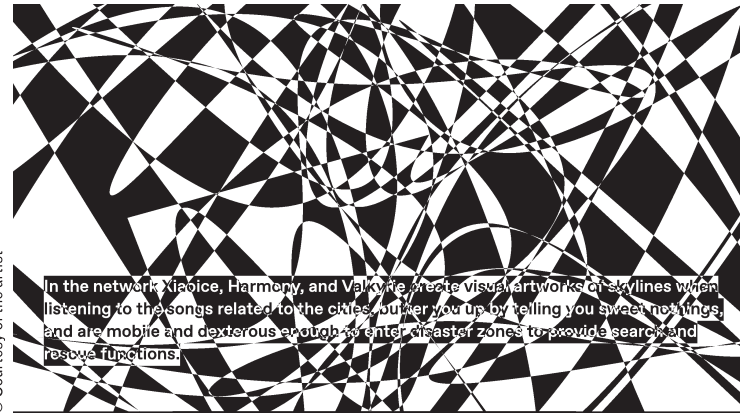
Concept and direction: Meiro Koizumi  
 Performer: Masatane Muto  
 Powered by: ABAL  
 Script: Masatane Muto and Meiro Koizumi  
 VR effects: Katsuya Taniguchi (Rhino Studios)  
 VR management: Tsuyoshi Nomura  
 Director of photography: Yasuhiro Moriuchi  
 Light: Atsushi Sugimoto  
 Sound recording: Ryota Fujiguchi  
 Camera assistant: Aoi Nakamura  
 Edit: Meiro Koizumi  
 Assistant director: Wataru Koyama  
 Technical manager: So Ozaki  
 Stage manager: Takashi Kawachi  
 Curator: Chiaki Soma  
 Production manager: Sayuri Fujii  
 Production coordinator: Aya Comori (TASKO inc.)  
 Production: Aichi Triennale 2019, Meiro Koizumi

Production for Seoul Station  
 VR Manager: Tsuyoshi Nomura  
 Translator and interpreter: Sanghae Kwon  
 Technical manager: So Ozaki  
 Production manager: Sayuri Fujii (Arts Commons Tokyo)  
 Production assistant: Yuko Taniguchi (Arts Commons Tokyo)  
 Tour coordination: Arts Commons Tokyo  
 Co-operation: WITH ALS, MUJIN-TO Production

Culture Station 284, Central Hall, 1F  
 Nov 26 Fri–Nov 28 Sun 12:00 / 12:30 / 13:00 / 13:3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 16:30 / 17:00 / 17:30  
 60 min / Korean and Japanese / VR performance

## 미토릭스

인공지능 기술의 침범처럼 여겨져 화려한 마케팅과 함께 등장했다가 논란을 일으켜 사라지거나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진 여성 사이보그 존재들이 있다. 「미토릭스」는 이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mito-net)를 구축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미토릭스」에 입장한 관객은 가상 비서로 추정되는 존재와 한 몸이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미토넷에 접속하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한다. 수행을 마치고 났을 때 관객과 가상 비서, 혹은 인간과 사이보그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그들은 그곳에서 만날 서로 다른 존재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Mitorix

Some female cyborgs once burst into the industry together with lavish marketing strategies, considered as the spearhea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any of these disappeared without a trace after having caused much controversy, silenced, and forgotten. What if these forgotten cyborgs managed to build their own network (mito-net), where they can live together and rely on each other? [Mitorix] is a project that departs from this imagination. In [Mitorix], the audience will be paired with a virtual secretary and will carry out different quests required to access the mito-net. When the quest is complete, what kinds of relationships will the audience and the virtual secretary, the human and the cyborg have formed? Will they be able to create new possibilities through solidarity with the different existences they will meet in the network?

콘셉트·연출: 김나희

음악: 유영주(amu)

대본: 김나희(사운드), 김나희, 김동휘(영상)

안무(영상): 오현수

출연: 김나령, 김나희, 우지안, 윤희준, HWI(사운드), 나윤희, 오현수, 현호정(영상)

3D 모델링·애니메이션: 이용아

스타일링(영상): 윤종선

촬영(영상): 최이다

녹음(영상): 장성건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Phillip Kim

리서치: 김나희, 유정원

한영 번역: 정소영

도움: 김석환, 오천석

위촉: 음/신 페스티벌

## 역행의 여행사

김지선은 패키지 여행의 경험을 웹사이트 투어 형식으로 옮겨 온다.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지역의 기념물과 문화를 둘러 보고 사람을 만나는 패키지 관광 여행처럼, 참여자는 작가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여 개의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이동하며 가이드와 함께 그 안의 역사와 데이터, 움직임을 보는 투어를 한다. 연작으로 발전될 웹-사이트 투어의 첫 번째 프로그램 「역행의 여행사」는 관념의 지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난의 대장정을 담고 있다. 방문하게 될 웹-장소들은 인위의 풍경으로 여행자를 맞이하며 시공간에 대한 그들의 감각에 질문한다.



© 지선도

문화역서울 284 2층 구회의실

12.4 토-12.5 일 14:00/17:00

작가와의 대화: 12.5 일 작품 종료 후

60분 / 한국어 / 웹-장소 투어

## Off Tours

Kim Jisun transplants the experience of a package tour into the form of a web-site tour. Like in a package tour where one travels by a coach, looks around monuments and cultures of the region, and meets other people, Kim will create a program that automatically transports the audience from one website to another. The audience will travel to numerous websites, discovering the history, data, and movements within them. As the first part of a developing series of web-site tours, [Off Tour] is an epic journey filled with hardships, a journey ascending the stream of ideas. The visited web-sites will greet the audience with their artificial landscape, leading the audience to question their own senses.

콘셉트·연출: 김지선

프로그램 개발: 주식회사 더뉴피쳐

홈페이지 제작: 민구홍 매뉴팩처링

리서치 보조·기술 진행: 강윤지

여행 프로그램 자문: 임지혜

기술 감독: 김지명

기록 영상 촬영·편집: 이민

2021년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선정작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Culture Station 284, Old Meeting Room, 2F  
 Dec 4 Sat–Dec 5 Sun 14:00/17:00  
 Artist's talk: Dec 5 Sun after the performance  
 60 min / Korean / Web-site Tour

## 사랑과 영혼



© Courtesy of the artist

김희천의 신작 「사랑과 영혼」은 작가가 인터넷에서 읽은 중량 훈련에 대한 조언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아리송한 이 블로그 글에서 출발하여 VR과 신체에 대해 질문한다.

\*

거울 앞에서 훈련하지 마시오.

첫째, 훈련하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몸이 느끼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의 분리로 마치 다른 사람이 훈련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소. 이때, 우리 뇌는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이 보는 것에 신체를 일치시키려 하고, 그 영향으로 리프팅 중간에 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둘째, 거울을 통해 보는 정면 시점은 애초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스네치, 클린 앤 저크 등의 훈련을 체크하기에 알맞은 시점이 아니요. 시각적으로 자세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면, 훈련을 영상으로 남겨 추후에 모니터 하거나, 코치나 동료에게 자세 모니터를 부탁하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리프팅에 대한 느낌을 캐치하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마시오.

거울 앞에 랙이 위치하고 있다면? 뒤돌아서 하시요.

사망이 거울인 체육관이라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 너머에 비친 뒷 배경을 보시오. 이 모든 방식이 어지럽다면? 당장 체육관을 옮기시오.

## Ghost (1990)

Culture Station 284, Stationmaster's Office, 1F  
 Nov 23 Tue–Dec 5 Sun, 11:00–19:00  
 Korean/VR installation

Kim Heecheon's new creation [Ghost (1990)] departs from a piece of advice he found online on weight training. Based on this ambiguous blog, Kim raises questions on VR and the body.

\*

Do not train in front of the mirror.

First of all, when you see your own reflection in the mirror, what you see with your eyes is split from what you feel with your body, leading to the sensation as if you are watching someone else train. Your brain fails to concentrate on your actions and tries to reconcile the body with what the eye sees. As a consequence, you may lose your posture during the lift. Do not think that you will be able to fully concentrate on the training while seeing your reflection in the mirror.

Second of all, the frontal perspective of your reflection in the mirror is by no means the right perspective when training squats, deadlifts, snatches, and clean and jerk. If you need to check your posture visually, record your training and monitor the video later, or ask your coach or your friend to monitor your posture. However, don't forget that the ultimate goal is to obtain a feeling for the lift.

What if the rack is in front of a mirror? Turn your back.

What if the gym has mirrors on all sides? Look at the background beyond your own reflection. What if all of this is too confusing? Find a different gym right now.

기획, 연출: 김희천  
 프로듀서: 홍민희  
 위촉: 옴/신 페스티벌

## 천부적 증인께

정여름의 신작 [천부적 증인께]는 가자 지구 공습 이후 3개월 동안 거주민들이 업로드한 실시간 이미지를 미행한다. 찍히는 순간 생생함이 사라지는 초 단위의 이미지들은 보는 이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의 폭력적인 현실을 응축해내지 못하고, 되려 현실을 여러 겹으로 덧씌우는 과편이 된다. 미행자의 심장이 뛰는 유일한 순간은 아주 드물게 현실이 상상의 증거로 맞아떨어질 때다. 증거는 연쇄적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희망을 야기하는 유성우가 된다. 작품은 정적인 풍경 속에서 폭격의 단서를 부단히 찾으려는 미행자의 도착적인 응시와, 스크린으로 납작하게 배개된 시각 정보 간의 공묘 관계를 들여다본다.



© Courtesy of the artist

문화역서울 284 1층 부인대합실

11.23 화-12.5 일 11:00-19:00

한국어 / 스마트폰 영상 설치, 사운드



## To a Natural Witness

『To a Natural Witness』 follows the real-time images uploaded by the Gaza residents for three months after the bombing of the Gaza strip. These split-second images lose their vividness as soon as they are taken;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the viewer, the images fail to extract a violent scene from the reality, but rather turn into flat fractures that cover up the reality with multiple layers. A rare moment that makes the viewer's heart beat is when the reality coincides with the imagination, becoming its evidence. The work looks into the complici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verse gaze trying to discover moments of the bombing from a static landscape and the visual information flatly mediated through the screen.

콘셉트·연출·사운드: 정여름

내레이션: 한이젤

내레이션 녹음: 김동윤

위촉·제작: 옵/신 스페이스

## 생각을 멈춘 크레타인

떡방, 폭식, 일상 소음과 ASMR, 바디 스캔과 요가, 그리고 명상. 비물질이 매개하는 디지털 소비사회에서 다시 창궐하는 물질성은 쇠진한 현존을 상기한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대가 끊긴 ‘지금-여기’ 원자화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폭식하고, 감각에 몰두하고, 들숨-날숨에 집중하며 현존의 불안을 잠재운다. ‘지금 여기’, 고립무원 속 항구적 우울은 자신을 안정화하고 사회로 건강히 복귀하라는 동시대의 자기 통치가 된다. [생각을 멈춘 크레타인]은 한 크레타인이 생각을 멈추고 평온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자, 언어라는 의문스런 인간 OS에 대한 의심이다. 사유와의 작별 뒤에 우린 다시 그 세계를 새롭게 떠올려 볼 수 있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문화역서울 284 1층 중앙홀

11.23 화-12.5 일 11:00/11:30/12:00/12:30/13:00/13:30/14:00/14:30/

15:00/15:30/16:00/16:30/17:00/17:30/18:00

30분 / 한국어 / 스마트폰 영상 설치, 사운드

## The Cretan Who Stopped Thinking

Food porn, binge eating, everyday noise and ASMR, body scan and yoga, and meditation. In the digital consumerist society mediated by the immaterial, materiality gains attention again, reminding us of our exhausted presence. In the atomized time of “here-now,” the chronological unity of the “past-present-future” is shattered. We gorge on food, absorb ourselves into fractured sensations, and concentrate on our every breath, trying to calm the anxiety of our presence. In the isolation of “here and now,” permanent depression becomes a mechanism of self-governance, an order to settle oneself down and to healthily return to society. [The Cretan who Stopped Thinking] traces a Cretan’s journey from deciding to stop thinking and thus gaining peace. At the same time, the work revolves around a doubt on the ambiguous operating system of humans; namely the language. After departing from the world of thoughts, could we arrive at a new world of language?

연출, 제작: 김보용  
 녹음: HONK  
 목소리: 김하연  
 사운드: 권상록  
 위촉: 옴/신 페스티벌

Culture Station 284, Central Hall, 1F

Nov 23 Tue–Dec 5 Sun 11:00/11:30/12:00/12:30/13:00/13:30/14:00/14:30/  
 15:00/15:30/16:00/16:30/17:00/17:30/18:00

30 min / Korean / smartphone video installation, sound

( )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신비가 남았다. 물질은 텅 빈 공간에서 접촉도 없이 어떻게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걸까?

2016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LIGO)는 ‘중력장’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3억 광년 떨어진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며 발생한 중력파를 측정하여 가능해진 결과다. 시공간은 중력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뒤틀리고 휘어 있으며, 물질은 그를 따른다. ‘텅 빈 공간’이란 건 없다.

감각 너머 거대한 세계의 문턱에서 인간은 아이가 된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해 소리 없이 상상한다. 상상력은 궁핍하다. 13억 년 전에 발생한 중력파가 그에게 도착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 )

Gravity was a great mystery to Isaac Newton, its pronounced discoverer. How can the gravitational force work in empty space without the mediating matter?

330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 (LIGO) announced the measurement of gravitational waves from the two colliding black holes 1.3 billion light-years away: the hypothetical and elusive “gravity field” was detected. There is no such thing as “empty space.”

The gravity field weaves what we know as space, with time interlocked. Distorted and bent, space-time remains puzzling to the isolated trivial beings that we are. We stand on the shore of the unknown like a child, marveling at the hidden origin and uncertain destiny of everything. The gravity waves arrive from 1.3 billion light years away at his senseless feet.

콘셉트·연출: 서현석

기술감독: 전봉찬

음향: 하상철

목소리: GONG CAN (龚璨)

위촉: 옴/신 페스티벌

본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창작실험활동지원을  
받아 개발된 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 날개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좌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오 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머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여섯 개를 한꺼번에 질경질경 씹어 먹어 버렸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잠결에도 바위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렴풋이 들려왔다.”

경성역. 커피. 아달린. 아스피린. 꿈. 금붕어. 날개 소리. 1936. 공간에 중첩되는 다른 시간.



© Courtesy of the artist

## The Wings

The avant-garde poet Yi Sang's gloomy imagination conveys the shock of modernity. Under the droning influence of sleeping pills given by his domineering wife, the distressed protagonist of [The Wings] wanders through the alienating streets of Seoul while contemplating on her perplexing grand intension until he seeks comfort in a cup of coffee served at the teahouse in Seoul Station.

This utterly simple set of sound and light plays out spatial distance and mental depth to echo Yi's distant words in the very place where his literary persona once took the bitter arousal of caffeine as an antidote to his forced lassitude eighty five years ago. To whom does the modern dilemma of restricted knowledge and inner uncertainty belong?

작가: 이상

콘셉트/제작: 하상철, 서현석

목소리: 김하늘

위촉: 읍/신 페스티벌

이 작품의 콘셉트는 2021년 (재)국립극단 [코오피와 최면약]에서 시작되었다.

## 레코드 스톱 플레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애니메이션(animation)과 사물에 생명에 불어넣는다는 뜻의 동사 애니메이트(animate). 작품은 그 둘 사이를 오고 간다. 「레코드 스톱 플레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물과 그 사물의 움직이는 이미지는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그 틈새에 사물과 카메라 모두와 관계 맺는 작가가 등장하여 생경한 삼각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 작품에서 조작하는 자, 촬영하는 자, 재생하는 자의 구분은 모호한 채로 남는다. 보는 이는 자신에게 익숙한 경계와 차이를 끊임없이 제조정해야 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 Record Stop Play

A double game between animating the object that is filmed and the actual animation. 「Record Stop Play」 revolves around the interplay between a moving object and the moving image of that object. When the artist jumps in between the object and the camera, a peculiar triangular relationship starts to form between all of the parties involved. The lines blur between who is manipulating, who is recording, and who is (re)playing. The viewer has to (re)negotiate the usual perception of limits or differences.

연출: 정금형

제작/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제작년도: 2011년

## 에란겔: 불가능한 공동체

서바이벌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열린 「에란겔 : 다크투어」는 한 명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 100명의 참여자가 에란겔 섬을 모두의 생존을 위한 연대의 공간으로 점유한 프로젝트였다.

「에란겔: 불가능한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를 성급히 긍정하기에 앞서, 지난 실패와 오늘의 한계를 거울삼아 문제를 살피고 예측해 보는 태도에 주목한다. 희망과 미래가 더 이상 중첩되지 않을 때,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미래를 새롭게 생각하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 Erangel: The Impossible Community

[Erangel: Dark Tour] was a project that experimented with solidarity inside an online survival game Battle Ground. Contrary to the given rule where the player has to fight to become the last survivor, 100 participants appropriated the Erangel Island as a space for solidarity, striving for the survival of all.

Rather than uncritically affirming the new cyber communities, [Erangel: The Impossible Community] focuses on attitudes that reflect on past failures and current limitations to project the future. When hope and future no longer coincide, could such attempts to confront reality become a starting point for a new imagination of an impossible future?

제작: 심은지

편집: 서현석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1년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선정작

이 작품은 제1회 가상정거장

[에란겔: 다크투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에란겔: 다크투어]

제작: 가상정거장

기획: 오영진

## 21 Days

[21 Days]는 플레이어가 시리아 난민이 되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주인공인 쉐누 본인은 본국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돈과 시간을 벌어 21일 안에 나머지 가족도 독일로 데려와야 한다. 게임은 플레이를 할 수록 미션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일깨운다. 『가상정거장』에서는 되풀이되는 실패의 기록을 다채널 영상 설치로 선보이고, 게임의 제작자들이 게임을 해부해 보는 포스트모템 토크를 통해 게임이라는 매체의 사회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21 Days: 실패의 수사학]

문화역서울 284 1층 1·2등대합실

11.23 화-12.5 일 11:00-19:00

한국어/영상 설치

[21 Days: 포스트모템 토크]

문화역서울 284 2층 세미나실

12.4 토 15:00

60분 / 한국어 / 토크

## 21 Days

[21 Days] is an online simulation game in which the player takes the role of a Syrian refugee,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to bring his family to Germany in 21 days by securing money and time. The more you play, the game reminds the player how impossible it is to clear the mission. In 『Virtual Station』, records of players' failed attempts will be presented as a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along with a post-mortem talk where the creators of the game dissect the elements of the game to explore the socio-political possibilities of the game medium.

[21 Days: 실패의 수사학]

게임 플레이: 정승민, 오세희, 윤은경

[21 Days: 포스트모템 토크]

콘셉트: 이정엽

출연: 김진형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1년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선정작

[21 Days: Rhetoric of Failure]

Culture Station 284, 1st and 2nd Class Waiting Room, 1F

Nov 23 Tue–Dec 5 Sun 11:00–19:00

Korean / video installation

[21 Days: Postmortem Talk]

Culture Station 284, Seminar Room, 2F

Dec 4 Sat 15:00

60 min / Korean / lecture performance

연계 행사

렉처: 서동진, '가상이 뭐라고: 현실 추상의 세계와 이미지'  
11.26 금 17:00  
문화역서울284 2층 세미나실

- 메타버스가 현실을 부가했다는 소식이 다들 들떠 있는 눈치이다. 가상세계는 새로운 것이 없는 현실이다. 상품과 화폐라는 현실 추상이 지배하는, 더욱이 극단적으로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그에 대해 슬슬 말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렉처: 이정엽, '게임과 예술성의 공존'  
11.27 토 14:00  
문화역서울284 2층 세미나실

- 게임 매체는 비즈니스 모델과 오락을 넘어 예술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토크: 김나희·유정원, 'Mitorix – Femqorg Index – nth meeting 211128'  
11.28 일 14:00  
문화역서울284 2층 세미나실

- [미토릭스]의 제작자 김나희와 리서처 유정원은 약 150명의 사이보그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매주 리서처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품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회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렉처: 오영진, '게임을 가속화하기'  
12.3 금 17:00  
문화역서울284 2층 세미나실

- 게임 예술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실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게임 미학을 소개한다.

SIDE EVENTS

Lecture: Seo Dongjin, "The Virtual: The world of real abstraction and image"  
Nov 26 Fri 17:00  
Culture Station 284, Seminar Room, 2F

- There seems to be a great excitement about the rise of the metaverse as an addition to reality. Yet, the virtual world is nothing new; it's simply another reality, particularly so in a radically financialized capitalistic world governed by the real abstraction – commodity and currency. Isn't it about time that we start to face this?

Lecture: Lee Jeongyeop, "Game and the Rhetoric of Failure"  
11.27 Sat 14:00  
Culture Station 284, Seminar Room, 2F

- Could the game medium go beyond business models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nd coexist with art?

Talk: Kim Nahee and Yoo Jungwon, "Mitorix – Femqorg Index – nth meeting 211128"  
11.28 Sun 14:00  
Culture Station 284, Seminar Room, 2F

- The producer of [Mitorix] Kim Nahee and researcher Yoo Jungwon held a weekly meeting where they shared information about approximately 150 cyborgs they found on the Internet. They will share stories untold in the work [Mitorix] in the form of their weekly meetings.

Lecture: Oh Youngjin, "Accelerating the Game"  
12.3 Fri 17:00  
Culture Station 284, Seminar Room, 2F

- Through examples that have radically experimented the possibility of game art, Oh Youngjin introduces new aesthetics in the game genre.

옵/신 페스티벌 2021

예술감독: 김성희  
프로덕션 총괄: 김신우  
프로듀서: 심은지, 유병진, 이경후, 이지윤  
기술총괄: 김연주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김나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김보용  
티켓 및 웹페이지 매니저: 광서영  
스태프 매니저: 우현주

진행: 권상록, 김서희, 박유정, 박진혜, 손혜주, 안예슬, 윤이나, 이선경, 이신영, 이주현, 임예은, 정신나, 최포근, 최현, 한솔빈, 황은아

통/번역: 이경후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서브 디자인: 이지현  
웹사이트 제작·디자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커뮤니케이션 자문: 정혜민  
무대: 김동현, 김연수, 김지원  
음향: 이선영, 장태순  
조명: 트리거컴퍼니 (감독: 황종량, 박성진)  
영상: 임테크(감독: 이선철), 윤민철  
VR: XYZ(감독: 전봉찬)  
기록물 촬영: 고유희, 박수환

OB/SCENE FESTIVAL 2021

Artistic director: Kim Seonghee  
Head producer: Kim Shinu  
Producer: Shim Eunji, Yoo Byungjin, Lee Kyunghoo, Lee Jiyun  
Technical direction: Kim Yeonju  
Offline communication: Kim Nayoung  
Online communication: Kim Boyong  
Ticket and website manager: Kwak Seoyoung  
Staff manager: Woo Hyunjoo

Coordination: Kwon Sangrok, Kim Seohee, Park Yoojung, Park Jinhye, Son Hyeju, Ahn Yeseul, Yoon Ina, Lee Seonkyung, Lee Shinyoung, Lee Juhyeon, Lim Yeeun, Jeong Sinna, Choi Pogeun, Choi Hyun, Han Solbin, Hwang Euna  
Translation: Lee Kyunghoo  
Graphic design: Sulki and Min  
Sub design: Lee Jiheon  
Website creation and design: Min Guhong Manufacturing  
Communication advisor: Jeong Hyemin  
Stage: Kim Donghyun, Kim Yeonsoo, Kim Jiwon  
Sound: Lee Seonyoung, Jang Taesoon  
Light: Trigger Company (director: Hwang Jongryang, Park Seokjin)  
Video: IMTECH (director: Lee Seoncheol), Yoon Mincheol  
VR: XYZ (director: Jeon Bongchan)  
Documentation: Koh Yoohee, Park Suhwan

협력 기관: 국립현대무용단,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래예술공장, 문화비축기지, 문화역서울284, 서촌공간 서로, 신촌극장  
주최/주관: 옵/신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노르웨이 대사관

Organized by: Ob/scene Festival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Taipei Mission in Korea, Royal Norwegian Embassy in Seoul  
In cooperation with: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Seoul Art Space Mullae, Oil Tank Culture Park,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chon Space Seoro, Sinchon Theater

